

韓英詩 번역을 위한 연어(連語)의 의미체계 고찰

우 형 숙
(숙명여대)

1. 들어가는 말

‘연어’(連語, collocation)는 둘 이상의 단어가 한 텍스트 속에서 메시지 전달을 위해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써 텍스트의 결속력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텍스트가 짧은 시에서는 ‘연어’가 작품의 배경뿐만 아니라 이미지 전달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므로 ‘연어’의 형태로 나타난 어휘들은 바로 작품의 중심 사상일 때가 많다. 따라서 ‘연어’의 활용이 잘 된 작품은 그렇지 않은 작품보다 독자에게 주는 감흥이 드높을 수 있다. 이러한 ‘연어’는 원문에서뿐만 아니라 번역문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로써 텍스트의 의미전달의 극대화를 위해 번역 작가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이 세상에는 최고의 시나 소설이 없는 것처럼 최고의 번역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잘된 시나 소설이 있는 것처럼 잘된 번역도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잘 된 번역, 제대로 된 번역을 낳기 위해 본 연구가 살핀 ‘연어’의 의미체계는 그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

‘연어’는 텍스트의 어휘들을 이어주는 의미체계이며 텍스트의 표층 구문에서

손쉽게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번역가가 번역 작업에 임할 때는 우선 원문에 나타나 있는 ‘연어’의 의미체계를 신중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를 잘 활용하여 원문 텍스트의 전달 내용에 알맞은 번역 텍스트를 낚아야 한다. 본 논문은 ‘연어’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번역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번역의 실제 즉, 번역가들이 내 놓은 번역 작품들을 선택, 분석하여 그 번역 과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현재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韓英詩 번역 작품¹⁾을 토대로 한다.

2. 詩 번역에서의 연어

‘연어’에 대한 논의는 퍼쓰(Firth, 1957:14)에서 출발하여 할러데이 앤 하산(Halliday & Hasan, 1976)에 이어 현재에까지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어’는 개개의 어휘 항목이 문맥 속에서 서로 결합되는 연쇄 관계(chain relation)라 할 수 있으며 이 연쇄 관계가 바로 연어가 일어나는 언어 환경이 된다. 이 언어 환경에는 항목 x로부터 항목 n의 거리 ($x \cdots n$)에 a, b, c \cdots 등 어떤 어휘 항목들도 삽입될 수 있다(Joia, 62). 이 때 이 환경 속에는 어떤 어휘 항목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 ‘연어’ 관계가 되는 항목들은 발생 확률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있다. 이때 발생 확률이 높은 어휘 항목들의 결합은 자연스런 ‘연어’이지만, 발생 확률이 낮은 어휘 항목의 결합은 텍스트의 전달력이 떨어져서 텍스트 수용자의 이해력을 끌어내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사실 문학 텍스트에서는 텍스트 생산자인 작가가 의도적으로 발생 확률이 낮은 연어를 써서 문학적 창의성을 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발생확률이 전혀 없거나 발생확률이 희박한 ‘연어’를 씌으로써 수용자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난해한 텍스트를

-
- 1) 『귀천』(Back to Heaven). 천상병 지음/ 안선재·김영무 번역. 2000. 도서출판 답게.
『밤이 깊으면』(The Early Lyrics 1941-1960). 서정주 지음/ 안선재 번역. 2000. 도서출판 답게.
『초토의 시』(Wasteland Poems). 구상 지음/ 안선재 번역. 2000. 도서출판 답게.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The Snow Falling on Chagall's Village). 김춘수 지음/김종길 번역. 2000. 도서출판 답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자칫하면 수용하는 독자에게 혼란만 줄뿐이므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원문을 번역할 경우 문맥과 작품 배경에 알맞은 어휘를 선택하는 한 방향으로 ‘연어’의 의미 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아래의 분석에서 보는 것처럼 ‘연어’의 의미 체계를 크게 두 가지 축면 즉, ‘상황별로 본 연어’와 ‘계층별로 본 연어’로 구분 짓고 ‘상황별로 본 연어’는 또 다시 ‘대조 상황의 연어’와 ‘동시 발생 상황의 연어’로 세분한다. 또한 ‘계층별로 본 연어’에는 ‘같은 어휘 계층의 연어’와 ‘다른 어휘 계층의 연어’로 세분하기로 한다.

2.1 상황별로 본 연어

2.1.1 대조 상황의 연어

‘boy/girl, love/hate, black/white’와 같은 대조 의미의 어휘들이 어떤 장면 혹은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하나의 텍스트에 함께 나타날 경우 이 때의 어휘들을 ‘대조 상황의 연어’로 칭하기로 한다. 다음에서 그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1) ST²: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 서정주의 「푸르른 날」 중에서

TT³:

Suppose I die, and you survive!

Suppose you die, and I survive!

On days of dazzling azure

2) source text (원천 언어 텍스트)의 약어이다.

3) target text (목표 언어 텍스트)의 약어이다.

I must yearn for the one I love.

- 안선재 번역

예 (1)에서 사용된 ‘대조 상황의 연어’는 “죽고서”와 “산다면”이다. 이에 번역시에서도 “die”와 “survive”라는 ‘대조 상황의 연어’로 번역해 주었다. 즉 원문시가 서로 대조되는 의미의 어휘를 사용해서 텍스트의 결속력을 보이고 있으니 그에 따라 번역문에서도 원문처럼 ‘대조 상황의 연어’를 그대로 번역해 줌으로써 텍스트의 결속력을 꺾고 있다. 이 때 “survive” 대신에 같은 의미 상황을 띄는 “live”로 번역해 주어도 대조 상황을 연출하는데 지장은 없다.

이러한 ‘연어’는 예 (2)에서처럼 연(stanza)의 결속을 보여주는 데도 사용된다.

(2) ST:

1

죽음은 갈 것이다.

바람도 나무도 잠든

고요한 한밤에

죽음이 가고 있는 경건한 발소리를

너는 들을 것이다.

2

죽음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가을 어느 날

네가 견고 있는 잎진 가로수 곁을

돌아오는 죽음의

핏핏하고 의젓한 무명의 그 얼굴....

- 김춘수의 「죽음」 중에서

TT:

1

Death will be going.

At quiet midnight,

you will hear the pious footsteps
of Death going.
2
Death will be coming back,
coming back again.
One autumn day,
along the leafless avenue where you are walking,
the vivid, decent, anonymous
face of Death coming back ...

— 김종길 번역

예 (2)의 시에서 첫째 연은 “죽음”이 가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고 둘째 연은 갔던 “죽음”이 다시 돌아옴을 노래하고 있다. 즉 “죽음”이라는 대상을 두고 작가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원문시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번역시에서도 ‘대조 상황의 연어’인 “going”과 “coming back”으로 번역함으로써 원문에서의 메시지를 반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위의 번역시는 원문시의 “갈 것이다”와 “가고 있는”, 그리고 “돌아 올 것이다”와 “돌아오는”의 통사적 차이를 구별해 주지 않고 있다. 즉 원문시의 “죽음은 갈 것이다”는 미래 진행형이 아닌 “Death will go”로 번역되어야 하고, “죽음은 다시 돌아 올 것이다”도 미래 진행형이 아닌 “Death will come back (again)”으로 번역되어야 하지만 위의 번역시는 시의 음향적인 면을 고려한 듯 비음(nasal sound) ‘-ing(잉)’이 내재된 “going”과 “coming”으로 반복 번역했다. 시 번역에서는 이러한 통사적 처리가 먼저인가, 음운론적 처리가 먼저인가에 대한 문제가 자주 일어난다. 이 때는 원문시의 분위기를 파악함이 중요하다. 즉 원문시가 시적 리듬을 보이는 경우에는 번역시에서도 음운론적인 면을 중시 할 수밖에 없고 산문시에 가까운 경우는 통사론적인 면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그러나 위의 시는 통사론적인 면을 배제하고 음운론적인 면을 고려해야 할 만큼의 리듬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둘째 행의 청각적 이미지를 주는 “바람도 나무도 잠든 고요한 한 밤에”를 단지 “At quiet midnight”로만 번역해 놓고 “바람도 나무도 잠든”에 해당하는 표현은 번역 해 놓고 있지 않다. 이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 보기 힘들다.

다음의 예는 각 행마다 ‘대조 상황의 연어’를 반복 표현해 줌으로써 보다 강한 결속력을 경우이다.

(3) ST:

동양의 무덤은 자연주의 같고

서양의 무덤은 합리주의 같고

동양의 무덤은 지연地然 합일주의이고

서양의 무덤은 편리주의이고.

— 천상병의 「무덤」 중에서

TT:

Oriental tombs are naturalistic

Western tombs are rationalistic.

Oriental tombs are a union with earth

Western tombs are convenience.

— 안선재 / 김영무 번역

예 (3)은 ‘대조 상황의 연어’인 “Oriental tomb(동양의 무덤)”과 “Western tomb(서양의 무덤)”이 서로 대비되는 모습을 노래한 텍스트이다. 대비 현상을 강조하는 내용은 ‘대조 의미의 연어’를 사용할 때 그 효과가 크며 또한 보다 더 큰 효과를 노릴 때에는 그 ‘대조 의미의 연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이다. 위의 텍스트는 바로 그런 경우이며 그로 인해 각 행은 서로 긴밀히 연결 되어 있다. 그런데 위의 번역시는 “동양의 무덤/서양의 무덤”에 대한 대조 의미의 어휘 쌍을 선택할 때 “Oriental tomb(동양의 무덤)/Occidental tomb(서양의 무덤)”이나 “Eastern tomb(동양의 무덤)/Western tomb(서양의 무덤)”으로 선택했으면 더욱 명확한 ‘대조 상황의 연어’ 체계가 될 뻔 했다.

2.1.2 동시 발생 상황의 연어

어떤 텍스트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어휘들의 묶음이 ‘동시 발생 상황의 연어’라 한다. 즉 영어에서는 ‘rain-dry-picnic-candy’ 보다는 ‘rain-pouring-torrential-wet’와 같은 어휘들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어휘들이 텍스트에 나타날 때 텍스트는 결속력이 보다 강해지는 것이다.

‘동시 발생 상황의 연어’는 다음 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 ST:

오호, 여기 출지어 누웠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뉘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 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욱 신비스러운 것이로다.

—구상의 「적군묘지 앞에서」 중에서

TT:

Ah, surely they could never close your eyes,
you, souls now resting here in rows?

It was our hands, that until yesterday
pressed the trigger and took your lives, that
gathered up your broken, rotting bodies, your bones,
chose a secluded mountainside where the sun is right,
and quietly buried them, covered the spot with turf,
for truly death is more mysterious
than hatred or love.

—안선재 번역

예 (1)는 “적군묘지 앞에서”란 제목에 어울리는 어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텍스트 생산자인 작가는 이들 ‘동시 발생 상황의 연어’를 사용함으로써 표층 구문에서 이미 적군묘지에 대한 이미지를 텍스트 수용자인 독자에게 암시

하고 있다. 이러한 ‘동시 발생 상황의 연어’는 다른 ‘연어’들처럼 독자들로 하여금 텍스트를 감상할 때 그 배경을 마련해 준다. 따라서 번역시는 원문시에서의 이러한 배경 역할을 맡고 있는 ‘연어’들을 놓치지 않고 번역해 줌으로써 원문시와 같은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위의 번역시도 원문시에 있는 ‘동시 발생 상황의 연어’들을 그대로 번역해 주어 원문의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동시 발생 상황의 연어’들은 특정 지역 및 특정 시대를 묘사할 때에 자주 사용되는데 다음의 예 (2)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2) ST:

꾸몽 고개 야자수 그늘에서
봉다워 바닷가에서
아니 사이공의 아오자이 남자와
마주 앉아서도
오직 그것만을 풀려고
애를 태다 돌아왔다.

아마 그것은 베트콩이 뿌린
전단인지 모른다.

아마 그것은 나트랑 고아원서 만난
월남 소년의 장난인지 모른다.
— 구상의 「월남기행」 중에서

TT:

In the shade of palm trees at Kumiong Pass,
beside the sea at Vontau,
even sitting with aodai-clad bargirls
in Saigon.

I strove to decipher it, in vain;

I have returned.

It might be propaganda

dropped by the Vietcong. I am not sure.

Or a trick by a Vietnamese child

I met at Natrang orphanage. I am not sure.

— 안선재 번역

예 (2)는 월남 즉, 베트남에서의 한 사건을 다루므로 당연히 텍스트 전반에 걸쳐 월남 관련 어휘들이 사용되어 있다. 이들 ‘연어’들은 첫 행에서 마지막 행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 텍스트는 시종일관 월남의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번역시도 원문에 충실하게 베트남의 지명을 그대로 음역하고 있고 베트남의 고유한 의복인 “아우자이” 또한 그대로 음역을 해주어 가능한 원문시를 따르려는 번역을 했다. 그러나 “아우자이”와 같은 그 나라만의 어휘는 번역할 때 목표 언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석을 달아 설명을 해 주는 방법도 있다⁴⁾. 그런데 위의 예는 원문시의 “낭자”가 번역문에서 “bargirl”로 번역되어 있다. “사이공의 아오자이 낭자”가 술집 접대부란 말이 원문에 없으므로 술집 접대부를 지칭하는 “bargirl” 대신 ‘girl’이나 ‘lass’로 번역되어야 한다. 또한 마지막 연의 “월남 소년”도 번역문에서 “a Vietnamese child”으로 잘못 번역되어 있다. 이는 “a Vietnamese boy”로 번역해 주어야 성별도 구별이 되는 번역이 된다. 한 단어의 잘못된 번역은 원문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으므로 원문 어휘에 충실한 번역이 되도록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2.2 계층별로 본 연어

2.2.1 같은 어휘 계층의 연어

‘같은 어휘 계층의 연어’를 정의하기에 앞서서 우선 ‘하위어(下位語

4) Barnwell(1980: 78-82)은 문화 차이에서 오는 낯선 어휘를 번역할 때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 1) 낯선 어휘는 설명조로 풀어서 번역한다
- 2) 원천 언어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3) 목표 언어 독자에 익숙한 어휘로 대체시킨다

subordinate)’와 ‘상위어(上位語, super-ordinate)’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어떤 단어 A에서 다른 단어 B를 사실적 지식에 관계없이 언어의 의미만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때, 단어 A는 단어 B의 ‘하위어’이며 역으로 단어 A는 단어 B의 ‘상위어’가 된다. 예를 들면 ‘tulip, lily, daisy’는 flower의 ‘하위어’가 되며 ‘flower’는 ‘tulip, lily, daisy’등의 ‘상위어’이다. 또한 ‘tulip, lily, daisy’는 서로 같은 계층의 어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같은 계층의 어휘들이 텍스트에서 나열되어 나타날 때 이를 ‘같은 어휘 계층의 언어’라 하며 이러한 언어로 인해 텍스트는 서로 연관성을 맺게 되므로 결속력을 보이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1) ST:

덧없이 바라보든 벽에 지치어
불과 시계時計를 나란히 죽이고
어제도 내일도 오늘도 아닌
여기도 저기도 거기도 아닌
-서정주의 「벽」 중에서

TT:

Weary of the wall I have been vacantly watching.
I kill light and clocks

not yesterday, not tomorrow, not today,
not here, not there, not anywhere,
-안선재 번역

위의 텍스트에는 시간의 ‘하위어’, 즉 시간을 ‘상위어’로 갖는 “어제”, “내일”, “오늘”이 나타나 있으며 이들 어휘는 서로 같은 계층의 어휘이다. 또한 장소의 ‘하위어’, 즉 “여기”, “저기”, “거기”도 서로 같은 계층의 어휘이다. 이들 어휘는 위의 텍스트에 서로 밀접하게 나타나 ‘언어’가 된 것이며 이로 인해 위의 텍스트는 ‘같은 어휘 계층의 언어’로 인한 의미의 결속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 ‘같은 어휘 계층의 언어’는 텍스트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층 면에서도 결속력을

높여 주므로 독자에게 강한 메시지의 전달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번역할 때도 이들을 놓치지 않고 번역해주면 번역문에서도 원문에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간을 ‘상위어’로 갖는 어휘들은 대단히 많다. 그 중 예 (2)의 ‘과거, 현재, 미래’는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2) ST:

새로우면서 과거와
이어져 있었다.
과거와 이어져 있으면서
미래와 이어져 있었다.

과거와 미래가 이어져서
오직 현재 하나였다.
오직 하나인 현재가
여러 가지 얼굴을 하였다.

— 구상의 「그리스도 폴의 강」 중에서

TT:

Renewed, although the past
continued steadfast there.
The past continued steadfast,
but the future too was there.

Past and future, thus united,
became one single present.
And that single present moment
showed many faces there.

— 안선재 번역

예 (2)는 두 연이 “과거”, “미래”, “현재”라는 시간의 ‘하위어’ 나열로 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들 어휘들이 반복 사용됨으로써 시적 리듬감과 강한 이

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때 이들 어휘들이 원문에서 반복되었다고 해서 번역문에서 삭제하거나 또는 다른 어휘로 대체한다면 원문의 정신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사항이다.

시간의 ‘하위어’이면서 서로 같은 계층의 어휘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만큼 시인들에게 애용되는 예도 없다.

(3) ST:

그 길을 다시 가면
봄이 오고,

고개를 넘으면
여름빛 쩌인다.

돌아오는 길에는
가을이 낙엽 훑날리게 하고,

겨울은 별 수 없이
함박눈 쏟아진다.

— 천상병의 「회상 2」 중에서

TT:

If I go that way again
spring comes.

If I pass beyond the hill
summer light shines.

On the way back
autumn leaves are drifting

and winter inevitably
scatters great flakes of snow.

— 안선재 / 김영무 번역

동서고금을 통해 시인들은 세월을 노래할 때 흔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소재로 삼는데 예 (3)도 그 중의 하나이다. 특히 위의 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4계절을 노래하기 위해 4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연에는 각 계절이 중심어 역할을 하면서 텍스트의 내용을 이끌어 가고 있다. 따라서 각 연은 이들 ‘연어’로 인해 내용상 4계절을 결속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원문의 특징을 번역문에서 놓칠 수는 없다. 번역문에서도 각 계절을 중심으로 4연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 (4)와 같이 색채에 대한 ‘같은 어휘 계층의 연어’를 살펴보자.

(4) ST:

매머드 아파트 창가에
 꺾상자 조각을 막고
 50원어치 흙을 사다
 10원어치 씨를 뿌린 봄 국화가
노랑
빨강
분홍
연두
흰빛 등
 꽃술을 달고 있다.

—구상의 「봄 국화」 중에서

TT:

At the window of a large flat,
 in an old orange-box
 with a scrap of soil
 and a packet of seeds sprinkled,
 spring chrysanthemums
yellow
red
pink
turquoise

white

are spreading their petals.

-안선재 번역

위의 텍스트에 나타난 국화 꽃술의 색깔, “노랑, 빨강, 분홍, 연두, 흰빛”은 색채의 ‘하위어’이며 각 색채들끼리는 서로 같은 계층의 어휘들이 된다. 이들 어휘들이 한 텍스트에 나란히 사용될 때 텍스트는 그로 인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데 위의 예가 그런 경우이다. 위의 예는 특히 각 색채들이 하나의 행으로 배열되어 있어 각 색채들이 독자에게 강하게 와 닿고 있다. 번역시에서도 이를 놓치지 않고 원문시의 행 배열에 충실하여 각 행에 색깔 하나씩을 두는 충실한 번역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각 행에 한 색채로 나타나는 ‘같은 어휘 계층의 연어’로 인해 가지각색의 풍성한 많은 국화 꽃술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전달받고 있다.

2.2.2 다른 어휘 계층의 연어

‘다른 어휘 계층의 연어’는 말 그대로 어휘가 서로 다른 계층, 즉 ‘전체-부분 관계’의 연어일 때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보면 ‘car-brake, body-arm, bicycle-wheel’는 서로 다른 계층의 어휘들이다. ‘car, body, bicycle’가 전체에 해당하는 어휘라면 ‘brake, arm, wheel’은 부분에 해당하는 어휘이다. 이들 다른 계층의 어휘들이 텍스트에 함께 나타날 때 텍스트의 내용은 이로 인해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음의 예 (1)은 바로 ‘다른 어휘 계층의 연어’로 인해 결속력을 보여 주는 경우이다.

(1) ST:

별아, 별아, 해 , 달아, 별아, 별들아,
바다들이 닳아서 하늘 가며는
차들같이 닳아서 하늘 가며는
해와 달이 되는가. 별이 되는가.

-서정주의 「旅愁」 중에서

TT:

Tell me, stars, you stars and sun, you moon and stars,
 when the oceans wear out and mount to the sky,
 when they wear out like quartz and mount to the sky,
 do they turn into sun and moon? Do they turn into stars?

-안산재 번역

하늘에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다. ‘하늘’이 전부라면 ‘해, 달, 별’은 하늘의 일부분이다. 즉, ‘전체-부분의 관계’인 ‘하늘-해/달/별(sky-sun /moon/sun)’의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위의 텍스트는 원문시와 번역시 모두 ‘다른 어휘 계층의 언어’로 된 결속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전체(sky)를 뺀 부분들(sun/moon/star)끼리는 <2.2>에서 살펴 본 ‘같은 어휘 계층의 언어’들로 인한 결속구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언어’들이 한데 어우러진 텍스트는 어휘로 인한 강한 이미지를 가지므로 번역할 때에도 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위의 번역문은 “달”과 “해” 앞에 정관사 ‘the’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위의 텍스트는 굳이 정관사를 삭제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해”와 “달”이 중요 어휘로 표현된 만큼 번역시에 정관사 ‘the’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어휘 계층의 언어’는 다음의 예 (2)에서도 볼 수 있다.

(2) ST:

千年 맺힌 시름을
 출렁이는 물살도 없이
 고은 강물이 흐르듯
 鶴이 나른다.

千年을 보던 눈이
 千年을 파닥거리던 날개가
 또한번 天涯에 맞부딪노나.

-서정주의 「鶴」 중에서

TT:

The crane flies on
like a smooth river flowing,
no ripples lapping,
through a thousand years of care.

Eyes that have seen a thousand years,
wings that have beaten a thousand years
strike once again against heaven's end.

- 안선재 번역

위의 텍스트는 하늘을 나는 “학(crane)”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때 사용된 “눈(eyes), 날개(wings)”는 “crane”의 신체 일부이다. 즉 서로 ‘전체-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은 이러한 ‘전체-부분의 관계’의 내용으로 결속력을 맺고 있다. 두 번째 연에서 비록 “학(crane)”이란 어휘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학”의 신체 일부인 “눈(eyes)”과 날개(wings)”로 인해 두 연을 연관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두 연을 연결 시켜 주고 있는 것이 “학, 눈, 날개”이므로 번역시에서는 이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정관사 ‘the’를 삽입하여 ‘eyes, wings’ 대신에 ‘the eyes’와 ‘the wings’로 번역해 주면 구조상 결속력 있는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연어’는 다음의 예(3)과 같이 독자에게 과학적인 지식을 요하는 때도 있다.

(3) ST:

물의 원소는
수소 두 개와 산소이지만
벌써 중학생 때 익히 알았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은
그 수소와 산소 뒤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단 말인가 .

공포할 만한 야수가 들어 있다.
수소 뒤에는 수소폭탄이,
산소 뒤에는 원자폭탄이.....

나는 국민학교 때는
비가 오기만 하면
학교엘 가지 아니하였다.

— 천상병의 「비」 중에서

TT:

The chemical composition of water
is two hydrogen atoms and one oxygen
I already knew that in middle school.

But I still don't know
what on earth there is
behind that hydrogen and oxygen ...

What's in there is a wild beast fit to be feared.
A hydrogen bomb behind the hydrogen
an atom bomb behind the oxygen.

When I was in primary school
if ever it rained
I didn't use to go to school.

— 안선재/김영무 번역

물(water)은 수소(hydrogen)와 산소(oxygen)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물과 수소 및 산소의 관계는 ‘전체-부분의 관계’이다. 또한 이때 수소와 산소는 <2.2>에서 살펴 본 ‘같은 어휘 계층의 연어’가 되기도 한다. 또한 수소와 산소가 텍스트에 반복해서 나타나므로 텍스트의 이미지가 강하게 돋보이고 있다. 물의 일부인 수소는 수소 폭탄(hydrogen bomb)을 만드는 데에 필요하므로 ‘수소-수소폭탄’이

라는 ‘전체-부분의 관계’가 성립하고, 산소는 원자폭탄(atomic bomb)을 만드는 데에 필요하므로 ‘산소-원자폭탄’이라는 또 다른 ‘전체-부분의 관계’를 보인다. 번역시도 원문시의 어휘 나열을 따름으로써 의미의 흐름이 원문을 따르고 있다. 물의 구성 요소인 수소와 산소가 수소 폭탄과 원자 폭탄의 재료가 되므로 작가의 머리 속에는 ‘물-수소/산소-수소폭탄/원자폭탄’이라는 연결성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면 작가는 비가 무서워 학교도 못 간다는 흐름이다. 이런 작가의 마음은 ‘전체-부분의 관계’에 있는 ‘연어’로 인해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번역문에서는 이와 같은 원문의 특징을 놓쳐서는 안 된다,

3. 나오는 말

번역이론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번역 활동 시에 일어 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두루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을 전개, 발전시키는데 있다. 또한 번역학의 목적은 좋은 번역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당하고도 포괄적인 번역 이론을 만드는 것이니만큼 본 연구는 이 임무에 의거하여 詩 번역을 위한 ‘연어의 의미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텍스트의 길이가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 번역에서 특히 ‘연어’의 고찰은 중요하다. 한 어휘가 어떤 문맥이나 상황에 잘못 사용되었을 때 원문의 이미지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가 있어 그 파괴력은 엄청날 수도 있다. 따라서 번역 작가는 번역에 앞서 원문의 ‘연어’ 체계를 우선 숙지한 다음에 번역에 임할 것이며 번역문에서도 원문에서와 같은 ‘연어’ 체계를 놓아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본 연구는 원문에서 뿐만 아니라 번역문에서도 중요한 ‘연어의 의미체계’를 어휘들의 발생 ‘상황’과 ‘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상황별로 본 연어’는 ‘대조 상황의 연어’와 ‘동시 발생 상황의 연어’로 세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계층별로 본 연어’는 ‘같은 어휘 계층의 연어’와 ‘다른 어휘 계층의 연어’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었다. 번역에 임할 때 이러한 ‘연어’의 의미체계에 따라 행해진 올바른 어휘 선택은 원문의 메시지 전달을 이행하는 바람직한 번역시를 낳을 수 있다. 그 결과 목표 언어의 독자는 잘 된 번역의 덕택으로 원문의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으므로 ‘연어’의 의

미 체계는 번역 작가들이 고려해야 할 요소라 하겠다.

참고문헌

- 이정민 · 배영남 『언어학 사전』 서울: 한신 문화사, 1982.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rnwell, K. 1980.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Translation*. Hertsley Green, England,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 Bassnett, Susan. 1988.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eaugrande, Robert de & Wolfgang Dressler.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
- Firth, J. R. (1957). *Papers in Linguistics 1934-195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iday, M.A.K. & Ruqaiya Ha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Jakobson, Roman. 1959.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R.A.
- Joia, Alex de & Adrian Stenton. 1980. *Terms in Systemic Linguistics: A Guide to Halliday*. London: Batsford Academic & Educational Ltd.
- Popović, Anton. 1976. *A dictionary For the Analysis of Literary Translation*. Edmonton, Alberta: Department of Comparative Literature, University of Alberta, 1976.
- Riffaterre, Michael. 1980. *Semiotics of Poetry*. London: Methuen.

[Abstract]

A study on Collocation in Poetry Translation

Woo, Hyung-sook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tems can be grouped together by range of collocation. Collocation is the syntagmatic association of lexical items. Any items can enter the range of collocation, and the collocated items can be ranged from more to less probable. The more strongly associated the given item tends to be with certain other items, the more powerful it is said to be. So the collocation is regarded as important in composing a text, whether it is a target text or a source text.

This study aims at revealing a theory of 'collocation' for Korean-English poetry translation. This is an attempt to demonstrate how important the 'collocation' can be in translating Korean poems into English ones. 'Collocation' can occur within the same sentence and across sentence boundaries. This study divides 'collocation' into two main parts, that is, 'the collocation by situation' and 'the collocation by lexical level'. And the former part has two sub-parts: 'opposite meaning' and 'co-occurrence'. The latter also has two sub-parts: 'same lexical level' and 'different lexical level'. All of these parts make the lines of a poem hang together as a unified whole.

For this study, some translated poems have been taken as examples. The analysis of poems contains what the text means as well as why and how it means. So, it explains the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that are put upon the translated poems. The purpose is to show reasonably comprehensive features of collocation in translating poetry. In general, the features are not limited to a pair of words. It is very common for long word chains to be built up out of lexical relations in a given text.

This study presents a theory of collocation for the more explicit Korean-English poetry translation. This analysis of collocation is to provide some methodological strategies for the translators of poetry when they may meet the problems of word choice.

▶Key Words: collocation, poetry translation, opposite meaning, co-occurrence, same lexical level, different lexical level

K C I